

Market Index / 16일

코스피지수 ▼ 2447.43 -29.98	코스닥지수 ▼ 699.11 -12.81	유가(WTI, 달러) ▼ 60.75 -0.30	환율(원) 1USD 100원 1448.92 1019.36	찰때 1439.08 984.30	찰때 1EUR 1CNY 1652.98 204.04	찰때 1588.48 184.62
------------------------	-----------------------	---------------------------	---------------------------------	-------------------	-----------------------------	-------------------

경제

새 소득원 될까… 아열대과수 선택지 넓힌다

고온 등 기후변화 대응한 새 소득 작목 발굴 시급
도농기원, 스낵파인애플·잭프루트 재배 시험 착수

제주 농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소득 작목 다양화를 위한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최근 제주 농업은 고온 등 이상기
상의 영향으로 레드향 열과율이 37%
에 이르는 등 재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새로운 기
회 삼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
소득 아열대 작목 발굴과 안정적인
생산기술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

원은 고당도 아열대과수인 '스낵파
인애플'과 '잭프루트' 등 유망 새
소득 작물 2종을 도입하고 제주지
역 재배 가능성 검토 시험에 본격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열대과수의 경우 판로가 한정
돼 소면적 다품목 체계가 지향되는
만큼 높은 당도와 식용 편의성으로
소비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
는 작물을 선정했다는 것이 도농기
원의 설명이다.

도농기원에 따르면 대만이 원산
인 '스낵파인애플'은 일반 파인애
플(15brix(브릭스))에 비해 당도
가 19brix로 높고, 과육이 손으로

쉽게 분리되는 특성이 있다. 과일
무게는 1.2kg 내외로 일본 오키나
와에서 한국 관광객 수요가 높은
작물이다. 일본 시장에서는 평균
개당 500~600엔에 판매된다.

인도가 원산인 '잭프루트'는 20
brix 내외의 고당도 과일로, 쫄깃
한 식감과 과육이 손으로 쉽게 분
리는 것이 특징이다. 과실 무게는
10~30kg로 대과종이다.

도농기원은 이번 연구에서 제주

지역에서 두 작물의 개화 등 생육
특성과 수량, 품질 특성을 조사해
기본적인 작물의 생리 및 재배특성
을 규명할 예정이다.

또 도내 재배 가능성이 높은 작물
에 대해서는 안정생산기술을 확립
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현주 농업연구사는 "아열대과
수는 국내의 재배 정보가 현저히
부족해 농가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망
작물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재배기
술을 보급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
여하겠다"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eejoh@ihalla.com

두 달 만에 열린 가축시장 암·수소 높은 낙찰가 형성

구제역 여파로 휴장했던 가축시장
이 두 달 만에 다시 열린 가운데 전
체적으로 높은 낙찰가가 형성됐다.

16일 서귀포시축산농협에 따르
면 지난 15일 열린 가축시장에는
총 60두(암 19, 수 41)가 출품돼 59
두(암 18, 수 41)가 낙찰됐다.

서귀포시축협은 이달 가축시장
에서 도내 3곳뿐인 육종농가 중 2
개 농가에서 출품한 암소들이 시장
분위기를 이끌며, 437만원이라는
높은 암소 평균 낙찰가격대를 기록
했다고 전했다. 축협은 이를 육종
농가들의 개량 성과가 반영된 결과
로 풀이했다.

수송아지 평균 낙찰가도 평균 366
만원으로 높은 가격대를 보였다.

이날 최고가는 색달동의 김창순
농가에서 출품한 수소가 기록한
703만원이었다.

서귀포시축협 김용관 조합장은
"긴 휴장 이후 다시 열린 가축시장
에서 좋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
었던 것은 농가들의 개량에 대한
노력과 열정, 그리고 서귀포시축협
의 지속적인 개량사업 지원의 결과
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한국 경제 미래는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미
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연합뉴스

모간스탠리, 韓 성장률 1%로 하향 조정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간스탠리는
16일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 관세 불확실성 지속' 보고서에서
"관세 국면과 지난달 주요 경제국
의 성장 하향 조정에 따라 (한국에
대한) 우리의 2025~2026년 GDP
(국내총생산) 전망을 20bp(1bp=
0.01%포인트) 더 하향 조정(trim)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성장률
은 1.4%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관세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더 빠르고 광
범위한 경기둔화 외에도 관세 불확
실성의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 죽소
는 이미 악세인 우리의 전망에 장애
(drag)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다음 주쯤 미국이 반도체

에 대해 잠정적으로 최소 25%의 관
세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면
서 이는 한국 경제에 "고민거리로
가중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성장을 위해 합의된 노력이
필요하지만 조기 대선이 예정된 6
월까지는 정책이 제한될 것으로 보
인다면 "올해 하반기 최소 20조원
규모의 주경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은행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2.0%
까지 내릴 것이라는 기존 전망
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제주공항 올해 1분기 공급석·이용객 감소 전년대비 각 10.2%·11.9% 줄어… 외국인 관광객은 ↑

올 들어 제주국제공항 공급좌석
과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6일 발표한
2025년 3월 제주공항 항공수송 실
적에 따르면 올 들어 석 달간 제주
공항 좌석 공급석은 국내선 636만
3411석, 국제선 65만9153석 등 총
702만2564석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81만8743석보다 10.2%
줄었다.

이용객도 국내선 553만6835명,
국제선 54만9652명 등 608만6487명
으로 전년 691만1584명보다 11.9%
나 감졌다.

특히 3월 한 달 공급석은 245만
2133석으로 지난해 같은 271만2548
석보다 9.6% 줄었지만 이용객은
206만9127명으로 전년 231만6278명
보다 11.1%나 감소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
됐다.

탑승률에서도 관광객 감소추이
는 그대로 나타났다. 공급편수가
줄고 관광객이 지난해 수준으로 유
지한다면 탑승률이 상승해야 하지
만 지난해 석 달간 88.4%에서 올해
는 86.7%로 오히려 줄었다. 3월 한
달 탑승률도 지난해 85.8%에서 올
해 84.4%로 1.4% 줄어든 것으로 집
계됐다.

지난 15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
광객도 내국인 282만555명, 외국인
47만2945명 등 329만849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내국인 329만
9347명, 외국인 44만9368명 등 374
만8716명 대비 외국인은 5.2% 늘
었지만 내국인이 14.4% 줄면서 전
체적으로 12.0% 감소한 것으로 집
계됐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더 내고 못 돌려받은 건보료 환급금 327억

3년 안에 미수령시 '소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
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
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
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건보공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
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을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
좌 사전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네이버 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
자고지' 서비스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일부 지사에서는 단순히 안
내문만 반복 발송하거나, 연락 불
가 사유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
는 등 소극적인 대응이 확인되기도
했다. 본부 차원의 관리·감독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환급계좌 사전 신청률도 저조하
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지역가입
자 신청률은 2.72%에 불과했고, 사
업장가입자도 34.3% 수준에 머물
렀다. 모바일 전자고지 역시 안내
문을 받아본 사람 중 실제 내용을
확인한 비율(열람률)이 10% 미만
에 그쳐 안내 효과가 미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환급금 미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 지
급 기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전 신청 제
도와 모바일 안내 채널을 적극적으
로 흥보·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진향, 맷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번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의(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
에서도 씨니트 접종을 불법 제취해서 자가묘목, 고정, 접종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흰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직발시 농가나 유통업체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농가 · 업체: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사업등록번호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서귀포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010-3696-2057

종사업등록번호 제 18-2002-20-07호

2025년 예약 주문 받습니다

하례조생

특징

조생온주계통이며

궁천조생보다 일주일 빨리 수확함.
당도는 궁천보다 뛰어남.

그 외 모든 품종 보유

서귀종묘

010-6677-5753, 064-733-7005